

● '99/6/9 지하철 공사장 화재

9일 22:30분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7호선 학동역 공사장내 지하 20m 지점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 목재와 사무집기 등 내부 7평을 태워 3백8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16대와 소방관 75명이 출동, 진화에 나섰으나 통로가 비좁은데다 심한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불이 날 당시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었고 전기배선 주위가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중이다.

● '99/6/14 목조 가건물 화재

14일 03:20분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제2지구에서 불이 나 목조 가건물 50채 1백80여 가구를 태워 7천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40여 가구 4백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주민들이 안내방송에 따라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의 치솟았다"고 한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과 경찰관 3백여명, 소방차

50여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공중화장실에 전기시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가 버린 담배꽂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99/6/29 철물점 화재

29일 01:10분 경 대구시 서구 비산7동의 공단 철물점에서 불이 나 인근 자동차정비센터와 가구점 등 조립식 건물 점포 3개 300㎡와 내부설비 등을 태워 4천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철물점 안에 사람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철물점 내부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99/7/11 정부종합청사 화재

11일 14:20분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4층에서 불이 나 내부 30여평 중 20여평을 태운 뒤 20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창문쪽에 있는 개인 책상과 컴퓨터 등을 주로 태웠다.

불을 처음 발견한 통일부 직원은 "연기가 청사 4층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와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4대와 소방관 80여명이 긴

급 출동, 잠겨진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다.

휴일이어서 동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고 4층 사무실 천장쪽에서 불길의 솟구쳤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일단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 '99/7/13 제품보관창고 화재

13일 08:50분 경 울산시 남구 여천동 울산국가 산업단지 내 PVC 안정제 생산업체 의 제품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염화칼슘 200톤과 PVC 안정제 150톤, PVC 안정제 원료 130톤 등이 전소됐으며, 울산소방본부 소속의 유독가스 제거용 차량 1대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40대 등을 태워 20억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부산소방본부 등지에서 지원한 소방헬기 4대와 울산시소방본부 소속 및 산업단지내 기업체 소속 소방차 80여대, 소방대원 2백50여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불길이 워낙 거세고 유독가스가 심해 처음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웠으며 10:30분 경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지원되면서부터 본격 진화가 시작돼 발화 5시간이 지난 15:30분 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회사측이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스테아린산 보관소에 사람이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소방서는 일단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 '99/7/27 의류공장 화재

27일 22:40분 경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의 의류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의류 5천여 장이 들어 있던 60평 가건물 1채를 모두 태우고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었고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점으로 미뤄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99/7/8 노르웨이 여객선 화재

스웨덴 근해에서 8일 새벽 승객과 승무원 1천3백여 명을 태운 여객선에 불이 났으나 신속한 구조 및 진화 작업으로 대형 참사를 모면했다. 노르웨이 선적 프린세스 라그힐드호는 독일 킬을 출발,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던 중 스웨덴 예테보리 항구 부근에서 이날 02:13분(한국시간 09:13분)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배에는 승객 1천1백69명, 승무원 1백72명 등 1천3백41명이 승선해 있었다. 화재가 나자 인근을 지나가던 선박들이 사고현장으로 집결하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당국이 헬리콥터를 출동시키는 등 4시간에 걸쳐 구조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기는 했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역은 지난 '90년과 '94년에도 화재 악천후 등으로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각각 1백59명과 1백3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빚었던 곳이다.